

어린이 가장 많은 질병은 기관지염·충치

심평원 다빈도 질병 분석
취학전, 중이염과 수족구병
저학년, 스마트폰으로 시력 이상
고학년, 발목·손목 등 골절 많아

이 자료에는 어린이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질병과 취학 전(5세~7세),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고학년(4~6학년)일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질병·부상에 대한 세부 분석 결과가 포함됐다.
2018년 한 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어린이는 전체 402만 6824명(취학 전 133만 8912명, 초등학교 저학년 134만 8409명, 초등학교 고학년 133만 9503명)으로 2009년 대비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1인당 병원을 방문한 일수는 취학 전 아동이 45일, 초등학교 저학년은 28일 그리고 고학년은 20일로 어릴수록 병원 진료일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린이 1인당 6.4개 질병과 부상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어린이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앓는 질환은 급성기관지염을 비롯한 호흡기 질환이며 충치 등 치아 질환, 피부염, 장염, 결막염 등의 순이었다.
취학 전 어린이는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약해 중이염과 수족구 관련 질병을 주의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중이염은 4월 한절기와 12월에 특히 발병률이 높았다.
초등 저학년들은 스마트폰·컴퓨터 사용과 학습의 시작으로 인해 골절 및 조절장애(근시, 난시) 등으로 안과 진료를 많이 받았으며, 물사마귀로 알려진 '전염성 물렁증' 환자의 외래 진료도 잦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초등 고학년들은 활발한 야외활동 등으로 인해 근골격계 부상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발목·손목 및 발·손 부위의 골절이나 인대의 탈구 등으로 병원 진료를 많이 받았다. 이 밖에 학습 환경이나 기타 스트레스로 인한 위염 및 십이지장염도 고학년일수록 증가세를 보였다.
심사평가원 김현표 빅데이터실장은 "심평원이 어린이날을 맞아 분석한 '2018년 어린이의 나이대별 질병과 부상을 사전에 확인해 자녀의 건강과 안전을 챙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소원 실은 비행기 훨훨 날아라 어린이날을 앞두고 2일 오후 광주시 동구 애플B유치원(원장 최봉훈) 원생들이 자신의 소원을 적은 비행기를 하늘로 날려보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해남 실종 노인 찾은
순천 119산악구조전
'이로운 동물상' 초대 수상



해남에서 실종된 80대 치매노인을 구조했던 순천소방서 산악119구조대 소속 인명구조원 '장고' (사진·벨지안말리노이즈·5살)가 '대한민국 이로운 반려동물대상' 초대 수상 동물로 선정됐다.
2일 순천소방서에 따르면 장고는 오는 4일 전북 익산군 오수면에서 열리는 제34회 의견문화제에서 대한민국 이로운 반려동물대상을 수상한다.
장고는 지난 달 11일 산나물을 캐러 해남의 한 야산에 올라 실종됐던 A(82)씨를 구조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당시 수색헬기를 통해 이상 물체를 발견한 경찰과 소방은 장고를 투입해 바위 옆에 웅크리고 있는 A씨를 발견, 구조할 수 있었다. 장고는 용맹·강종 등 동로 구조견들과 함께 전남 일대 실종자 수색·인명구조에 활동하고 있다.
구조견을 담당하고 있는 손도환 소방교는 "장고는 목적이식이 뚜렷하고 특별하게 명령을 내리지도 않아도 알아서 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며 "훈련도 놀이로 즐기는 편이어서 앞으로 현장 활동을 하면서 많은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

폭언에 악성민원... 교권침해사례 절반은 학부모

교총 지난해 접수 501건 분석
광주·전남 17건...부당 처분 2위
지난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신고된 교권침해사례의 절반이 학부모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교총이 발표한 '2018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사들이 교총에 상담을 요청한 교권침해사례는 총 501건이었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폭언을 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 교

육청 등 상급기관에 악성민원을 반복 제기하는 등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243건(48.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피해' 80건(15.97%), '교직원에 의한 피해' 77건(15.37%), '학생에 의한 피해' 70건(13.97%), '제3자에 의한 피해' 31건(6.19%) 순이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총 17건의 교권침해사례가 접수됐다. 역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10건(58.8%)으로 가장 많았고, '교직원에 의한 침해' 5건

(29.4%), '학생에 의한 피해' 2건(11.8%) 등이다.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사례는 2008년 249건에서 10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2016년 이후 매년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하는 추세다.
교총 관계자는 "오는 10월 17일 교권침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도록 개정된 교원 지위법 시행을 앞두고 2학기부터 학교현장에 안착될 수 있게 정부와 사·도교육청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40 **달뜨기** 04:56
해질 19:19 **달집** 17:37

나들이가기 좋은 주말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크겠다.

광주	맑음	9/28	보성	맑음	5/25
목포	맑음	11/24	순천	맑음	11/26
여수	맑음	13/24	영광	맑음	7/25
나주	맑음	5/27	진도	맑음	9/24
완도	맑음	11/26	전주	맑음	9/27
구례	맑음	5/28	군산	맑음	9/24
강진	맑음	7/27	남원	맑음	6/27
해남	맑음	5/25	흑산도	맑음	12/20
장성	맑음	5/27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서~북서	0.5~1.0	서~북서	0.5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1.5	북서~북	0.5~1.0
남해	앞바다	서~북서	0.5~1.0	남서~서	0.5
서부	앞바다(동)	서~북서	0.5~1.5	서~북서	0.5~1.0
서부	앞바다(서)	서~북서	0.5~1.5	북~북동	0.5~1.0

◇생활지수

- ☺ 관심
- ☹ 식중독
- ☀ 매우 높음
- ☁ 자외선
- ☹ 보통
- ☹ 미세먼지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6:32	01:10
		18:47	13:23
여수		02:03	08:19
		14:20	20:37

◇주간 날씨

4(토)	5(일)	6(월)	7(화)	8(수)	9(목)	10(금)
☀	☀	☀	☀	☀	☀	☀
11/27	12/25	11/22	10/23	11/22	12/23	12/23

조선대·순천대 대학 혁신지원 '역량강화형' 사업 선정

교육부의 지난해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역량강화대학'으로 분류됐던 66개교 중 조선대 등 22개교가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역량강화형'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 해당 학교들은 정부 지원을 받는 대신 정원 감축과 특성화 교육 발전 등을 추진하게 된다.
지원대상 선정 대학교는 조선대와 순천대·우석대 등 호남권 3곳을 비롯한 12곳이며, 전문대는 조선간호대·한영대 등

10곳이다.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역량강화형은 '역량강화대학' 가운데 선정된 22개 대학들에 정부 재정을 지원하는 대신 정원 감축과 특성화 교육 발전 등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총 406억원을 대학(276억원)과 전문대학(130억원)에 나눠 지원한다. 대학은 1개교당 평균 23억원, 전문대학은 1개교당 평균 13억원을 받는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교생, 출신학교 명찰은 학벌주의 부추길 수 있다"

광주시민모임 인권위 진정
교육 실습생(교생)들이 출신 대학 등이 적힌 명찰을 착용하는 것은 학벌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일 '초·중·고 교육실습 현장에서 교생에게 출신대학·학과 등이 기재된 명찰을 착용하도록 강제하는 실태를 시정하도록 교육부와 사·도교육감에게 권고하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일선 교육실습 현장에서 교생들은 각 대학에서 제작한 출신대학이 적힌 명찰을 실습기간 일상적으로 착용하고 있다. 대학에서는 모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지라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지만, 시민모임 측은 출신 대학과 사범대, 비사범대 여부 등이 드러날 수 있는 등 역기능도 만만치 않다고 설명했다.
시민모임은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은 그 사람의 가능성을 검증받을 기회마저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